

Asahi, 한국에서 PDP유리 생산

구미공장에 10억달러 투자 ... 한옥 출자비율도 70%로 확대방침

일본 최대의 평면유리 생산기업인 아사히 글라스(Asahi Glass)가 2003년부터 한국에서 PDP(Plasma Display Panel)용 유리기관을 가공·생산한다.

Asahi Glass(旭硝子)는 2003년 5월부터 PDP용 유리소재를 일본 關西공장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뒤 경북 구미에 있는 합작기업 한옥테크노글라스 공장에서 가공·생산한 뒤 판매할 계획이다.

PDP용 유리기관 생산능력은 약 5만매이고, 설비 투자액은 약 10억달러로 잡고 있다.

한국투자 계획은 연평균 70%의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PDP업계의 유리기관 공급시장 진출을 위한 것으로 현지기술 이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Asahi는 한국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한진무역이 2002년 설립한 한옥테크노글라스에 대한 출자비율을 2003년 1월 현재 49%에서 5월까지 70%로 늘릴 방침이다.

한편, Asahi Glass는 브라운관(CRT)용 유리 전문 생산기업인 한국전기초자의 지분 30%를 가진 최대 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 03/ 13>